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몽골

Mongolia

2022년 5월 12일 | 조사역(G3) 이승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564천 km ² 	인구 3,418백만명 (2021기준)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150.98억 달러 	1인당GDP 4,418 달러 	통화단위 Tugrik(투그릭) 	환율(U\$기준) 2,849.29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30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으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함.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몽골 GDP의 23.8%, 총수출 금액의 84%를 차지하여 몽골 경제를 이끌고 있음. 다만,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음.
-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 정책' 하에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 경제과학기술협정(1991), 문화협력협정(1991), 투자증진보호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약(1993), 세관협력협정(19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96), 에너지광물자원 협력협정(1999), 범죄인인도조약(2000), 형사사법공조조약(2000), 관광협정(2004), 사회보장협정(2007), 수형자이송조약(2008), 민사상사법공조조약(2010), 사증발급간소화협정(2012)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291,073	271,157	384,715	자동차, 기호식품, 건설광산기계
수입	32,596	20,535	24,949	의류, 기타금속광물, 동광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694건, 506,953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5.6	7.7	5.6	-4.6	1.4
소비자물가상승률	4.3	6.8	7.3	3.7	7.1
재정수지/GDP	-3.7	2.9	0.9	-9.2	-3.5

자료: IMF, EIU

2017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수용 후, 2019년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지속

- 2011~13년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몽골은 2014년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광물 수출 급감,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영국 광산업체 리오틀토와 몽골 정부 간 분쟁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 광물 국제가격 하락 등의 악재가 겹쳐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해 국가부도 위기에 놓이게 됨. 이후 2017년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3년 계획의 IMF EFF(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수용하였음.
- 몽골은 201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 자금 약 4억 4천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 일본으로부터의 약 30억 달러의 지원금에 더해 중국으로부터 약 2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제공받음.
- 구제금융 등 투입 및 IMF 체제 하의 긴축재정 실시 결과 몽골 경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7%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2018년에는 9년 만에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의 경기침체를 겪은 뒤 2021년 회복세에 접어들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침체와 무역 감소로 인해 광업 부문과 대 중국 수출이 급격한 부진을 겪으며 2020년 몽골 경제는 -4.6%의 역성장을 기록함.
- 2021년 기준 광업 부문은 몽골의 GDP 중 25%, 총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몽골 총수출액의 75%가 중국으로의 수출임.
- 몽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외부와의 항공 노선 중단,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매우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를 시행한 결과 2020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함. 특히 주요 수출광물인 석탄의 수출량이 2019년 대비 21.6% 감소해 몽골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2021년 몽골 경제는 1.4%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며 2020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전년보다 완화되면서 수출 활성화,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 기존 몽골의 경제성장 동력이 일부 회복된 결과로 보임.
- 금과 구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이 기존의 최대 석탄 수입상대국인 호주와의 정치적 분쟁으로 주요 수입선을 호주에서 몽골로 대체하면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임.
- 2021년 상반기 주요 전망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5~6%대로 전망했으나, 하반기 전염력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팬데믹 여파가 지속되어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함.

국내경제

2022~23년 본격적인 성장 회복이 기대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외변수 존재

- IMF는 2022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몽골 경제가 2022년부터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점차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여 2022년 2%대, 2023년 7%대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석탄 수출의 증가와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의 두 번째 단계인 지하 부문의 개발이 완료되어 2022년 1월 생산을 시작한 점, 고용의 정상화에 따르는 국내 수요 회복 등이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몽골 광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가격이 2020년 상승 직전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몽골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22년 5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로 연료 및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¹⁾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은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소비재의 대부분을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 4~8%를 크게 상회하는 15%대에 이를 전망

- 2022년 1월 몽골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6%를 기록하였음. 이는 몽골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4~8%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로, 전 세계적인 소비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수입물가의 급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침체되었던 2021년 상반기와 대비된 기저효과 등의 요인에 의한 상승으로 분석됨.
- IMF는 2022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몽골의 202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15%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5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어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IMF의 예측치를 뛰어넘을 위험이 존재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코자 2020년 11월 기준금리를 6.0%로 낮췄던 몽골 중앙은행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에 대응하여 2022년 들어 기준금리를 1월 말 6.5%, 이어 3월 말 9.0%로 두 차례 인상하며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함.

2022-23년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축소하며 재정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전망

- 몽골 정부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수용한 이듬해인 2018년에 9년 만의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시현하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듯했으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과 지원 정책 등 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며 GDP 대비 2020년 -9.2%, 2021년 -3.5%의 재정수지 적자를 경험함.

1)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5월 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는 0.75~1.00%로 상승하였음. 앞서 지난 3월 연준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음.

국내경제

- 코로나19 관련 방역 정책, 경기부양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정부에게 요구되었고 또 실제로 가계·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으나, 몽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은 몽골의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2020-21년 몽골 정부는 평균적으로 GDP의 약 13% 규모의 재원을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지원에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존재함.
- 2022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정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그동안의 일시적인 면세 혜택과 특별 실업급여 지급 등을 철회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이 감소할 예정이며, 소비재 가격의 증가와 중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155	-1,903	-2,162	-675	-1,548
경상수지/GDP	-10.1	-14.4	-15.2	-5.1	-10.3
상 품 수 지	1,490	685	1,158	1,756	1,121
상 품 수 출	5,834	6,557	7,183	6,991	7,970
상 품 수 입	4,345	5,871	6,025	5,235	6,849
외 환 보 유 액	2,771	2,717	3,182	3,995	3,671
총 외 채	28,773	29,684	31,445	32,317	34,536
총외채잔액/GDP	250.6	224.8	221.4	242.8	228.8
D.S.R.	25.2	49.2	43.7	62.0	43.8

자료: IMF, EIU

2014년 이래 계속되는 무역수지 흑자에도 GDP 대비 -10%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4년 이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몽골의 경상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2021년에는 GDP 대비 -10.3%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열악한 수송 인프라로 인한 높은 광물 수출비용에서 비롯되는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유출에 기인하는 소득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흑자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점에 의한 것임.
-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 수출의 주력 운송수단인 철도 인프라 확장을 위해 2010년 철도 개발 3단계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인접국들인 중국, 러시아와 몽골의 주요 광산을 잇는 '초원의 길' 계획과도 궤를 같이함. '초원의 길' 계획이 완성되면 몽골은 광물 수출에 들어가는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산업은 물론 몽골 내 제조업과 무역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중국으로부터의 석탄, 야금탄 등 산업자원 수요 증대에 힘입어 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관광업의 재개로 서비스수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이 중단되었던 2020-21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광산에 대한 투자 증가와 광산업 활성화는 동시에 몽골 광산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로앞 과실공금의 증가로 이어져 소득수지 적자 폭을 늘림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22년에도 역시 GDP의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외채상환능력

2017년 이후 IMF 체제 아래에서 외환보유액 확충

- 몽골은 2017년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IMF의 EFF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부족했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21년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인 2016년 외환보유액의 2배를 넘는 약 37억 달러이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치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둔화되고 경제 전반이 침체되었던 2020-21년에도 꾸준히 외환보유액을 늘려온 점을 고려하면, 몽골 정부는 전반적으로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며 대외지급능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월평균수입액의 약 3개월분을 적정치로 봄.

거액의 대외채권 원금 상환 압박 가중

- 2021년 몽골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현재 몽골의 상환능력 대비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나타냄. 실제로 몽골 정부는 2021년 4월 Mazaalai 채권(5억 달러 규모)의 원금 상환을 완료함.
- 몽골 정부는 Mazaalai 채권을 대체할 목적으로 2020년 10월 6억 달러 규모의 Nomad 채권을 발행하였음. Nomad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5.13%로 Mazaalai 채권의 발행이자율(10.87%)의 절반 미만이며, 몽골 정부는 이를 통해 채권이자 지급액 2,600만 달러를 절감할 전망이다.
- 몽골 정부는 향후 3년 간 다수의 채권 상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약 2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22-23년 정부수입의 증가와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고려할때 외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몽골 정부가 2024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목록

채권명	금액	이자율	발행	만기
MIK사 채권	3억 달러	9.75%	2019년	2022.1
Chinggis 채권	10억 달러	5.125%	2012년	2022.12
Gereg 채권	8억 달러	5.6%	2017년	2023.5
개발은행 채권	5억 달러	7.25%	2018년	2023.10
Samurai 채권	300억 엔	1.5%	2013년	2023.12
Khuraldai 채권	6억 달러	8.7%	2017년	2024.3
ER사 채권	4.4억 달러	9.25%	2019년	20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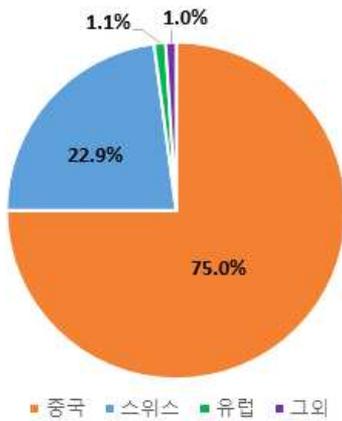
출처: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몽골 중앙은행

구조적취약성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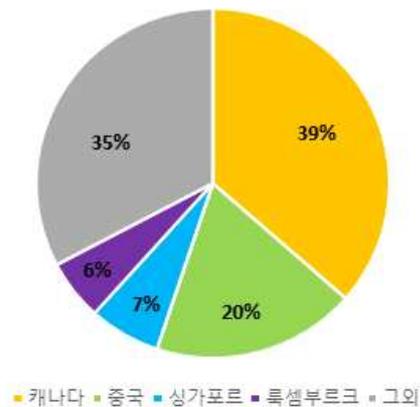
- 몽골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2020년 기준 몽골 수출의 75%, 수입의 46%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경제 개방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 2021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누적 투자가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있음. 몽골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이 중국보다 많은 국가는 캐나다 한 곳 뿐이며, 광산업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투자자본은 광산업, 무역업,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중국의 투자 감소시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몽골 경제를 외적 변수에 취약하게 만들음.
-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상반기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량과 투자가 급감한 결과, 동년 상반기 몽골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음.

[그림 1] 2020년 몽골의 국가별 수출비중



출처: 몽골 통계청

[그림 2] 1990~2021년 몽골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광산업에 편중되어 외부 요인에 민감한 경제구조

- 몽골은 과거 전통적인 유목국가로 2000년까지 농·목축업이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광산업의 비중을 늘려나가 2021년에는 광산업이 전체 GDP의 25.2%를 차지하는 광산업 중심 경제구조로 탈바꿈함. 경제가 광물 수출에 의존적인 탓에 원자재 국제 수요 및 가격 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표 2] 2000~20년 몽골 산업구조 변동 추이 (GDP 대비 비중,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1년
농·목축업	27.4	19.8	11.6	13.3	13.0
광산업	11.3	21.0	22.4	17.6	25.2
제조업	9.1	7.7	8.6	9.1	9.0
건설업	2.6	3.0	2.9	4.7	3.3

출처: 몽골 통계청

구조적취약성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정책과 투자의 효율성 저해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PI)에 따르면 몽골의 투명성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10위로,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공직자 부패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몽골의 최대 규모 광산인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과 관련한 2013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당시 광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가 무기한 연기되어 몽골 투그릭화의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음.
- 2010년대 이후 자국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지한 몽골 정부는 부패 척결을 국가의 중대 과제로 내걸고 이를 위한 법 개정, 정책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성장잠재력

광물자원 매장량 세계 10위의 자원부국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각각 세계 2위와 4위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와 석탄 외에도 약 80가지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희토류 역시 전 세계 매장량 중 약 15%가 몽골에 매장되어 있음.
- 현재 몽골의 수출 중 약 80%를 광물자원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하자원 수출 및 개발 관련 외국자본 유입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증가가 기대됨.

[표 2] 몽골의 주요 광물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구분	연도별 생산량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석탄(천톤)	48,145	51,402	55,799	43,845	매장량 세계 4위
원유(천배럴)	7,624	6,388	6,876	4,106	매장량 45억 배럴
구리(천톤)	1,317	1,310	1,262	1,277	매장량 세계 2위
몰리브덴(천톤)	5,760	5,486	5,302	6,148	생산 세계 9위
금(톤)	19.8	20.7	16.3	20.2	매장량 3,000톤
철광석(천톤)	7,694	6,225	8,572	9,224	추정 매장량 15억 톤

출처: 몽골 통계청

성장잠재력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수립으로 다방면에 걸친 국가 발전 도모

- 2020년 몽골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사회·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한 장기 개발계획인 '비전 2050'을 발표하였음. '비전 2050'은 과거 실행되었던 정책과 개발계획들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4년 단위로 단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0년 단위 3단계의 국가 장기 개발 프로젝트임.
- 기존 정책들이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수립·진행되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과 달리, '비전 2050'은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역개발을 포함한 다방면의 정책 과제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모든 정부 부처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몽골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몽골인의 삶의 질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전 2050 수립에 참여한 몽골 경제학자 도르지(Dorj)에 따르면, 과거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장기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중간점검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전 2050' 역시 그와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3] 비전 2050 장기 개발정책의 9개 주요 목표

No.	목표	세부 내용	No.	목표	세부 내용
1	문화강국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강한 민족이 될 것 (세부 목표 4개)	6	녹색 개발 	녹색 개발을 통해 존중해(중요시해) 자연환경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 (세부 목표 28개)
2	인간 개발 	몽골 인간개발지수를 0.9에 도달하고 행복지수로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것 (세부 목표 57개)	7	안전한 사회 	몽골 민족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내외 환경을 구축 (세부 목표 9개)
3	삶의 질 및 종산총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으로 구성된 종산총의 비율을 2050년에는 전체 국민의 80%에 도달시킬 것(세부 목표 17개)	8	지역중심개발 	안정적인 인구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몽골내 지역 개발 (세부 목표 9개)
4	경제발전 	GDP 6.1배 증가, 1인당 GDP 1만 5000미국 달러 도달, 세계 선진국 기준 도달할 것 (세부 목표 11개)	9	울란바토르 및 위성 도시 	살기 좋고 친환경적이며 국민 중심의 도시 개발 (세부 목표 2개)
5	바른 정부 	안전한 정부, 인권 보호 및 공평한 체제 가동, 뇌물 없는 국가 (세부 목표 6개)			

출처: KOTRA, 몽골정보통신기술국

정책성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적 노력 진행 중

- 외국인직접투자는 몽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진행 중임. 특히 2013년 제정된 신투자법은 그동안 존재하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고 외국인의 몽골 시장 진출에 대한 면허 폐지, 투자환경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투자법 제정을 통해 몽골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며, 일부 전략산업 분야에서만 외국계 기업의 투자 시 몽골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규제가 완화됨.
-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조세·비조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음. 조세 혜택으로는 부가세 및 관세 면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면세 혜택 등이 있으며, 비조세 혜택으로는 토지 사용 혜택 제공, 혁신사업 자금 보증 등의 서비스가 시행 중임.

E-Mongolia 전자정부 서비스 시행으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 개선

- 몽골 정보통신기술국은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는 통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E-Mongoli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022년 4월 기준 60개 정부기관의 639개 서비스를 E-mongolia 통합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PC/모바일에 각각 최적화된 포맷을 제공하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몽골 정부가 제공하는 약 1만 1,200개의 모든 정부 서비스를 통합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러한 몽골의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는 몽골 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와도 관련이 있음. 전자정부 서비스가 체계를 갖추면 현재 몽골에 대한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에 의한 행정 처리 시간 지연이나 부패와 연관된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더욱 개선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치안정

지난 총선과 대선 모두 몽골인민당이 압승하며 정책 연속성 기대

- 2020년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은 여당 몽골인민당(MPP, Mongolian People's Party)이 전체 76석 중 6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2016년 총선에 이어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9월 MPP의 대선 후보인 우흐나 후렐수흐 전 총리가 6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MPP의 정책 연속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 대통령인 바툴가 행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MPP는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정책들이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이 행사되며 정책의 효율성이 저해된 바 있으나, 2021년 대선 이후 MPP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차지하게 되어 향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됨.
- 현 행정부의 오윤 에르덴 총리는 '비전 2050' 등의 장기적 국가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등 국가 재정 건전화에 힘쓸 것으로 예측됨.

몽골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지만 결함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몽골은 EIU가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점 6.42점으로 167개국 중 62위를 차지함. 이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수준으로,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우수한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가됨. 몽골 민주주의의 장점은 선거문화 및 제도가 투명하다는 것으로, 2020년 6월 총선과 2021년 9월 대선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의혹 제기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부가 부패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함.

사회안정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마무리

- 때때로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 하에 환경오염이나 고용 문제에 대한 시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평화 시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음. 아울러 몽골 내부에서 테러 등의 과격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중국 내 내몽골 자치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몽골어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와, 2021년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후렐수흐 전 총리의 퇴임을 촉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시위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발생했으나, 두 시위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몽골이 높은 기후·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정에서 보이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몽골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몽골은 폐기물 발생,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석탄과 탄화수소 관련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짐. 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삼림파괴, 사막화가 진행되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몽골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소득 불평등이 청년층 인구 증가와 정부의 사회안전망 마련 등으로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비전 2050' 등 전반적 사회개혁을 추진 중이나, 정책 집행 전담 기관의 부재와 부정부패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에 의해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이와 함께 거액의 외채부담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압력으로 환경이나 사회 위협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해 몽골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인접국이자 최대 교역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전망

-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인접국인 동시에 몽골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들임. 중국은 몽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몽골 경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임. 중국 측에서도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몽골과의 무역·교통 경로를 확장하고 FTA를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향후에도 중국은 계속 몽골의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남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러시아 역시 몽골의 주요 에너지 수입상대국이자 중국에 이은 몽골의 2대 수입상대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2월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몽골은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3월 2일 열린 UN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몽골은 '기권' 입장을 밝힘. 몽골 외에도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등이 기권을 택함.
- 2022년 5월 현재 중국이 'Zero Covid' 정책을 위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몽골의 대외 물류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임. 또한 몽골은 2021년 기준 석유제품의 89%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물류 운송의 비효율성 증가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으로 몽골의 수입/수출 비용이 크게 증가해 몽골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국제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의 병행

- 한편으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UN에서의 교류와 활동을 늘리는 등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몽골은 미국과 2014년 '미국-몽골 안보 관계 공동성명'을 체결하여 군사·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2015년 일본과 최초로 EPA(경제협력협정)를 체결하고 2020년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회원국이 되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 중임.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대외차입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의 외채원리금 상환 진행 중

- 2021년 9월 30일 기준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 잔액은 1,592.5백만 달러(단기 48.3백만 달러, 중장기 1,544.2백만 달러)이며, 이 중 6.6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체비율은 0.4%로 낮은 편임.
- 한편, 몽골은 199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의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부족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국제기구와 채권국들로부터 외화를 조달해 2020년 22억 4,100만 달러의 외채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총 140억 달러 상당의 외채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등 외채부담이 높은 수준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1.06.)	7등급 (2020.06.)
Moody's	B3 (2020.01.)	B3 (2018.01.)
Fitch	B (2019.07.)	B (2018.07.)

OECD, 2020년 6월 몽골의 평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

- OECD는 몽골이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 중이며, 외채부담이 과중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당시 이러한 불안정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만연한 부정부패·소득불평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는 2020년 6월 몽골의 국별위험도 평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 중임.

- 몽골은 2016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뒤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며 2019년까지 5~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외환보유액을 2016년 대비 2배 가량 확충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여옴.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지며 몽골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 1.4%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 회복, 오유 톨고이 광산 개발 진행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으로 2%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이 몽골 경제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0년 총선에서 몽골인민당(MPP)이 재집권하고 2021년 대선에서 MPP 후보인 후렐수흐 전 총리가 승리를 거두며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함. 이를 통해 '비전 2050'과 같은 장기 국가개발 계획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